

힘써 여호와를 알라(호세아 6:1~3)

호세아서의 하나님 메시지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B.C.722)이며 그는 농부 가문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7:4).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이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간음 행위 사건은 하나님의 아내적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행위와 타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경고하며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1. 호세아서의 내용 구성(1~14 장)

호세아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락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사랑(1~3 장)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흠으신다는 뜻이고, 둘째는 ‘로루하마’인데 이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며, 셋째는 ‘로암미’로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를 버리지 않고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몸값으로 주고 다시 데려 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고한 것입니다.(3:1~2)

(2)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4~14 장)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진지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4~7 장), 의로우신 동시에(8~10 장)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호세아서는 징계를 내리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 호세아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서의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멜을 아내로 삼은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1:2~3)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1:3).” 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사 아내 곧 신부로 맞이 해주신 것을 예표합니다.(계 21:2).

(2)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 고멜을 노예 시장에서 몸 값을 주고 구출하여 다시 데려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3:1~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3:2)”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예표합니다.(사 53:5~6)

(3)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내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잠시 헤롯의 눈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신 것을 예표합니다.(11:1, 마 2:15)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었거늘”(11:1) 이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15 절에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셔야 함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를 타락한 세상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롬 8:30) 영적으로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가장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3. 호세아서의 중요한 영적 교훈

호세아서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것이고(4:6, 6:1~3),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거나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지함이니 속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큰 음행에 대한 경고(1:2, 2:2, 3:1~5)

고멜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짝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이방의 ‘바알’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음행임을 경고 하셨습니다. 또 음행으로 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변함없이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보호 받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게 패망하게 됩니다.(2:10~11, 7:13~16) 즉 패망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떠남이고, 둘째 진리를 버리고 그릇 행함이고, 셋째 하나님의 사랑 구속을 거부함이고, 넷째 능력주시고 번영하게 되면 세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7:13~16).

(2)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5: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 도다(5:11).”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허망한 세상 정책이나 무가치한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정책들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 따르고 사명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람에게 학대받고 압제 당하고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3) 힘써 여호와를 알 것을 교훈합니다.(6:1~3, 4:6).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소홀히 하고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좇기를 그치므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4:6)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힘써 알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6:1~3) 즉 오직 여호와를 알고, 오직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오직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알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 때에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불순종한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뀌게 되며, 불충성의 삶에서 충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나름대로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7:8).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7:8).”

당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만 익다가 타버려 먹지 못하는 떡, 온전치 못한 떡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치 못한 신앙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 온전치 못한 봉사, 온전치 못한 충성, 온전치 못한 순종, 온전치 못한 십일조가 하나님을 거스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 입니까?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5)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를 교훈합니다.(14:1~9)

14:1 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② 회개하고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③ 이를 깨닫는 것이
지혜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14:9).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며, 악인은 권위의 경계선인 진리를 탈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 결론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태도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벗어 났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을 입고 그 분의 진노를
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 축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신앙 생활하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